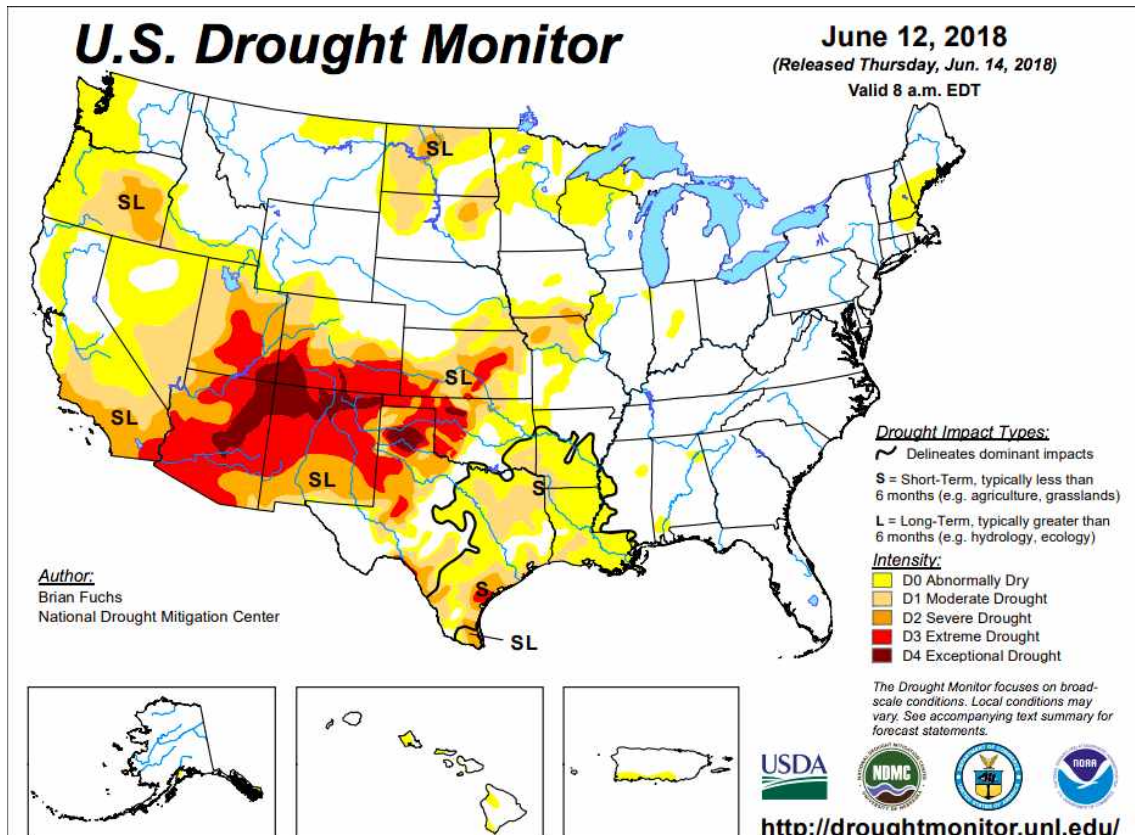


6월 1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25)

□ 미국 기후 현황(6/10~6/16)

중부 일대에서는 때이른 더위로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서양 연안 지역 일대에서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로키산맥 북부 일부 지역에서만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씨를 이어갔다. 북부 일부 지역과 남동부, 중서부 등에서는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여름 작물들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남서부 일대에서는 주 후반에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Bud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이 지역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산불 진압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캘리포니아와 Great Basin 등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농업 현황 요약(6/11~6/17)

미시시피강 일대와 오대호 주변 지역을 포함한 동부의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대부분 6월 17일에 끝이 났고, 지역에 따라서 5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아리조나와 뉴 멕시코 등 지난 겨울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0.5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캔사스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9°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다. 반면, 로키산맥 북부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뉴 잉글랜드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3°F 정도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6/10~6/16)

■ 유럽: 프랑스와 스페인 북부,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또다시 1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비가 내렸던 대부분의 지역은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주 후반부터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재개되었고, 프랑스와 폴란드 남부, 발칸반도 북부 일대에서도 수확 준비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한편, 독일 북부와 폴란드 북서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는 지난 6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발칸반도 남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북부 유럽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3°C 정도 높았고,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6°C 이상 높았다.

■ 구소련(서부): 남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반면, 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흑해 주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4°C 정도 높았고, 겨울밀은 빠른 생육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이어졌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평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러시아 Southern District의 남부 및 중부 지역 일대에서는 지난 6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 및 서부의 대두와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10~8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밀 수확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벼 재배지 일대에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중국 북부 평원 지역 및 양쯔강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가 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평균 기온도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만 남서부에서 발생한 태풍 Gaemi는 대만 남부 일대에 25~100mm 내외의 비를 뿌렸다. 이번 비로 벼 수확작업은 다소 지연되었지만, 최근 파종을 마친 이모작 벼 재배지 일대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동부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는 지난 5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 이어져 온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한반도의 북부지역 일대에서도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일본 북부의 주요 벼 재배지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서부와 남동부 일대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는 최근 파종을 마친 밀, 보리, 캐놀라 및 다른 겨울작물의 생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호주 일대에서도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남호주,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등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의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밀 및 기타 겨울작물의 발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남부 일대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Buenos Aires 중부 일대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대부분의 중부지역에서는 5~4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3°C 정도 낮았고, 밤 동안에는 기온이 영하 2°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Cordoba 북부와 Entre Rio 북동부, Misiones 일대에서는 5~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북서부의 Salta, Formosa, Chaco, Santiago del Estero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4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59%, 96%를 기록했고, 많은 지역에서 밀의 파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남부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do Sul 남부 일대에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Parana 남부, Rio Grande do Sul 동부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Parana 북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가까이 올랐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1일 기준 밀의 파종률은 83%를 기록했고,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1%를 기록했다. 중부와 북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